

## 形態論, 爭點들에서 길 찾기\*

崔 炯 龍

(梨花女大 教授)

### 要約 및 抄錄

形態論은 形態素에서 出發하여 單語까지를 다루는 分野라는 定義는 言語 普遍的이지만 나머지는 언어마다의 特殊性을 考慮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單語의 定義와 範圍인데 한국어는 音韻論的 單語, 文法的 單語, 語彙的 單語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에서 形態素의 交替는 音韻論的 單語 개념에 立脚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品詞의 分類는 文法的 單語 개념에 立脚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文法的 單語 개념에 立脚하여 品詞를 分類하면 語尾를 品詞의 하나로 認定해야 하므로 品詞 分類 基準 가운데 ‘形式’은 基準이 될 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한국어의 語彙的 單語는 單語 形成을 위한 개념인데 한국어에는 助詞 結合語, 語尾 結合語가 적지 않다. 이는 例外가 아니라 한국어가 膠着語로서 가지는 特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漢字語 形態論은 固有語 形態論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데 漢字語 形態論의 特性도 곧 한국어 形態論의 特殊性으로 理解될 필요가 있다.

※ 核心語: 形態論, 形態素, 交替, 音韻論的 單語, 文法的 單語, 語彙的 單語

### I. 머리말

그동안 한국어 形態論 연구가 걸어온 길을 檢討하고 爭點을 추출하거나

\* 本稿는 2015년 10월 16일 韓國語文學術團體聯合會와 梨花女子大學交 多文化研究所가 主管하여 이화여대에서 열린 光復 70주년 한글날 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發表했던 것을 다듬은 것이다.

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앞으로 한국어 形態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본 논의도 폭넓은 측면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一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形態論의 연구 방향에 대한 多角的인 展望을 抽象的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동안 제시된 한국어 形態論에 대한 爭點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所見을 덧붙여 일종의 里程標를 세우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 본 논의의 일차적인 目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爭點들을 보다 客觀化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爭點들은 때로는 微視的으로 때로는 巨視的으로 제시되어 爭點의 폭과 깊이가 一律的이지 않고 그에 따라 爭點을 제시한 연구자의 觀點을 反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이는 첫째와도 연관되는데 그동안 제시된 爭點은 여러 연구자들이 共通的으로 問題로 認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러 연구자들이 共通的으로 爭點으로 認識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重要性和 比例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짚어 보는 것은 한국어 形態論에서 問題가 되는 것에 대한 認識의 정도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는 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爭點들 사이에는 일정한 相關性이 있고 또 相關性을 念頭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어떤 爭點은 다른 어떤 爭點이 解決되어야 順次的으로 解決策을 찾을 수 있는, 方向性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極端的이기는 하지만 어떤 爭點의 解決이 어떤 爭點에 있어서는 서로 矛盾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爭點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論議에서의 ‘爭點’은 그 意味가 좀 느슨하다는 점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爭點’의 辭典的 定義는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인데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爭點에다가 때로는 그동안의 연구 ‘成果’, ‘傾向’, 그리고 앞으로의 ‘課題’ 혹은 ‘展望’도 모두 包含시켜 다룰 豫定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본 論議가 단순히 形態論의 ‘爭點’을 다루

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形態論의 課題를 ‘爭點化’하려는 意圖도 가지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 II. 形態論의 爭點에 대한 既存 論議의 檢討

본고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해 먼저 기존에 形態論의 爭點으로 제시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爭點에 대한 既存 論議는 比較的 最近인 1990년대 後半부터 이루어진 것을 對象으로 한다. 이는 특히, 後述하는 바와 같이 形態論의 位相, 그리고 그에 따른 範圍 問題와 無關하지 않다. 본고에서 다룰 論議들을 우선 發表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송철의(1997), 「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 나. 홍중선(1998), 「구조 분석에서 형성으로-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 다.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 라. 시정곤(2000가), 「정보화 시대와 형태 연구의 새로운 방향」
- 마. 구본관(2002), 「형태론의 연구사」
- 바. 시정곤(2002), 「현대형태론의 과제와 전망」
- 사. 고재설(2007),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노명희(2005)를 중심으로」
- 아. 송원용(2010), 「형태론 연구의 쟁점과 전망-유추론자와 규칙론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 자. 장윤희(2010), 「<국어학> 50년-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차. 이홍식(2012), 「<국어국문학> 60년-국어학」
- 카. 유현경(20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

後述하는 바와 같이 (1)의 논의들은 直接的으로든 間接적으로든 形態論에 대한 다양한 爭點을 包含하고 있다는 共通點이 있다. 그러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關心 對象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각각 다르다. 이를 대체

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觀點으로 나눌 수 있다고 判斷된다.

첫 번째는 形態論의 全般的인 내용을 形態論 중심으로 폭넓게 고찰한 論議를 들 수 있다. 이에는 대체로 (1가, 나, 마, 바, 자, 차)가 속한다. 이 가운데는 形態論보다 國語學 全般에서 形態論의 比重을 논한 (1자)가 가장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形態論의 巨視的인 爭點’이라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形態論의 微視的인 側面을 爭點化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에는 대체로 (1사, 아, 카)가 속한다. (1사)는 특히 한자 形態論의 爭點을 浮刻한 論議이며 (1아)는 單語 形成에 대한 기제로서 類推와 規則을 爭點化한 것이다. (1카)는 그 範圍로만 본다면 ‘形態論의 巨視的인 爭點’에 넣어도 좋을 것 같지만 ‘標準 文法’이라는 特殊 목적에 따라 形態論의 爭點을 浮刻하고 있다는 점에서 觀點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들은 ‘形態論의 微視的인 爭點’이라 부를 수 있다.

세 번째는 形態論을 다른 部門과 관련하여 聯關性を 살피거나 課題를 제시한 論議를 들 수 있다. 이에는 대체로 (1다, 라)가 속한다. (1다)는 形態論과 音韻論과의 聯關性を 중심에 둔 것이며 (1라)는 應用의 側面에서 情報學과 關聯된 課題를 제시한 論議이다. 따라서 이들을 ‘形態論과 關聯 分野의 爭點’이라 부를 수 있다.

## 1. 形態論의 巨視的인 爭點

(1가)의 송철의(1997)은 形態論을 ‘단어를 分析하여 그 내부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생성 규칙을 밝히는 연구 분야’로 定義하고 開花期부터 50년대 초반,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70년대 초반, 70년대 중반以後의 세 時機로 나누어 研究 成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課題를 提示한 논의이다. 송철의(1997)에서 앞으로의 課題로 提示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2) 가. 기초 자료의 정리와 분석

#### 나. 형태론의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 정의와 체계화

다. 조어법 기술에 있어서의 통시적 정보의 고려

라.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국어의 특수성 고찰

(2가)는 派生語 辭典이나 複合語 辭典과 같이 基礎 資料의 整理와 分析에 關心을 기울여야 할 必要性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2나)는 形態論의 基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提示된 것인데 具體的으로는 語根分離 現象을 考慮할 때에 單語는 어떻게 定義되어야 하며 語根形成 接尾辭들이 많은 한국어에서는 造語法을 어떻게 定義해야 할 것인지 하는 問題와 語彙素, 登載素, 構成素와 形成素 등의 用語들을 어떻게 整理하고 體系化해야 할 것인지 하는 問題를 提示하기 위한 것이다. (2다)는 通時的 情報의 不在가 資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招來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잘못된 解釋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2라)는 한국어가 膠着語이기 때문에 가지는 特殊性和 그것과 無關하게 나타나는 特殊性을 形態論의 次元에서 糾明해야 할 必要性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나)의 홍중선(1998)은 既存 論議에 대한 檢討와 問題 提起를 별도로 나누어 提示하고 있다. 우선 既存 論議를 檢討하기 위해 形態論을 연구의 특징과 흐름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았다.

(3) 가. 품사 중심의 형태론

나. 형태소 인식과 구조 분석

다. 굴절의 문법

라. 단어 형성

홍중선(1998)에서는 既存 論議에 대한 檢討 가운데 북한의 形態論 연구도 함께 檢討하고 있다는 점에서 特徵이 있다. 爭點은 ‘연구 현황과 과제: 問題 몇 가지’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품사 분류

나. 형태소 분석

- 다. 형태론의 용어
- 라. 형태론과 어미의 관계
- 마. 파생어와 복합어, 구절의 분별 기준
- 바. 단어의 구조 분석
- 사. 단어 형성 과정의 규칙화
- 아. 한자어의 구조 분석과 형성 문제
- 자. 영과생
- 차. 사람 이름과 결합하는 ‘-이’의 범주
- 카. 통사적 접사의 설정
- 타. 어휘부

(4가)는 ‘助詞’나 ‘指定詞’ 問題뿐만이 아니라 分類 基準에서부터 始作하여 좀 더 合理的이고 說明力 높은 品詞 分類 體系의 必要性을 意味한다. (4나)는 形態論의 分析에 있어 共時的인 接近과 通時的인 考察이 함께 이루어져 緻密하고 徹底해야 함을 強調한 것이다. (4다)는 특히 ‘形態素’와 ‘單語’, ‘曲用’과 ‘活用’, ‘語根’, ‘語幹’, ‘語基’ 등의 用語가 그 概念과 範疇 설정에 있어 학자들마다 다른 現象을 指摘한 것이다. (4라)는 ‘語尾’가 統辭論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연구 狀況에 따라 이를 形態論에서 捕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問題를 提起한 것이다. (4마)는 그동안의 연구 成果에 따라 이들 範疇 設定에 개념 變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認定하고 대신 보다 精密한 區分 裝置가 무엇인지를 苦悶해야 한다는 점에서 提起된 것이다. (4바)는 派生과 複合에 관한 理論이 充分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인데 假令 ‘명사+하다’에서 ‘하다’의 地位에 대해 多樣的 解釋이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연구가 充分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본 데 따른 것이다. (4사)는 個別性보다는 普遍性을 가지는 單語 形成의 規則化가 필요하며 制約 現象에 대한 記述도 體系性과 普遍性을 指向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4아)는 漢字語의 構造와 形成 問題가 固有語와 比較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提起한 것이다. (4자)는 零派生이 단순한 說明의 長短點을 넘어서 한국어 전체의 特質 次元에서 整理될 필요가 있음을 言及하기 위한

것이다. (4차)는 ‘-이’가 주로 사람 이름 다음에連結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쓰이는 것들을 包括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提起이다. (4카)는 統辭的 接辭의 設定에 따른 長短點을 分析해 보아야 할 必要가 있다는 점에서提起된 것이다. (4타)는 기타로 提示된 問題인데 單語 形成의 終着地이며 統辭部 입력 資料가 되는 生成 文法의 語彙部에 대한 연구의 必要性을 위한 것이다.<sup>1)</sup>

(1마)의 구본관(2002)는 주로 1950년대 이후부터 最近까지의 形態論 연구를 眺望한 研究史인데 연구의 主體, 言語 理論의 變化 등으로 나누지 않고 다음과 같이 ‘主題’로<sup>2)</sup> 나누고 있다.

#### (5) 가. 형태론의 범위

- 나. 형태소와 단어 - 형태소와 그 기능(분석 방법과 분석 단위, 형태소의 의미 기능과 형태소의 결합), 단어와 품사(단어의 정의, 품사 분류)
- 다. 굴절론 - 체언과 조사의 결합(조사의 분류, 조사의 생략, 조사끼리의 결합), 용언과 어미의 결합(어미의 분류와 분석, 어미끼리의 결합)
- 라. 조어론 - 파생법(파생법과 파생 접사, 접두 파생법, 접미 파생법, 비접사 파생법), 합성법(합성법과 합성어, 합성어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 ‘X하다’ 구성

(5가)는 한국어 形態論 연구에서 造語法과 屈折法을 包含시키는 論議가

1) 홍중선(2015)는 國語學 全般의 課題를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論議를 形態論에 局限한 홍중선(1998)과는 差異가 있다. 그러나 홍중선(2015)에서도 形態論의 課題를 提示하고 있는데 單語 形成이 語彙部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問題, 形態素의 認識, 形態素의 分析, 單語 形成 過程의 通時性과 共時性의 分揀 問題, 空形態素의 設定 問題, 屈折이 形態論인가 統辭論인가 하는 問題, 單語 形成에서 形成 節次에 대한 問題, 形態 交替 現象을 音韻論에서 다루어야 할지 形態論에서 다루어야 할지 혹은 形態音韻論을 設定해야 할지의 問題, 單語 形成 原理가 規則에 의한 것인지 類推에 의한 것인지의 問題, 品詞 分類에서 ‘助詞, 存在詞, 指定詞(잡음씨), 形容詞, 代名詞, 數詞, 助用詞, 接續詞’의 設定 問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形態論은 북한에서는 ‘單語造成論, 品詞論, 形態論’이 모두 對當된다는 言及도 追加하였다.

2) 구본관(2002: 3)에서는 이를 ‘部門’이라고 하였으나 본고의 觀點에서는 爭點이 浮刻되도록 이를 ‘主題’로 바꾸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屈折法이 統辭論의 領域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는 背景 說明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爭點이 있지만 구본관(2002)에서는 形態論의 領域을 최대한 넓게 잡아 (5나-다)와 같이 나누어 形態論의 範圍를 제시하고 있다.

(5나)의 ‘形態素와 그 機能’에서 ‘分析 方法과 分析 單位’는 形態素의 確認과 연관된 基準 提示와 관련된다. 즉 어디까지 어떻게 分析할 것인가가 爭點이라는 것이다. ‘形態素의 意味 機能과 形態素의 結合’은 먼저 空形態, 零形態, 不連續 形態, 補充法, 形態素 全體나 一部の 脫落 등을 爭點化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單語와 品詞’에서 ‘單語의 定義’는 특히 助詞와 語尾의 單語 與否와 관련된 爭點을 위한 것이고 ‘品詞 分類’는 分類 基準에 따른 品詞 分類의 實際에 얽힌 問題를 위한 것이다.

(5다)의 ‘體言과 助詞의 結合’에서 ‘助詞의 分類’는 특히 格助詞의 分類에 대한 爭點을 위한 것이고 ‘助詞의 省略’도 주로 格助詞의 省略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다. ‘助詞끼리의 結合’은 단순한 助詞의 連續과, 連續이 새로운 助詞 結合體가 되는 것에 대한 關心을 紹介한 것이다. ‘用言과 語尾의 結合’에서 ‘語尾의 分類와 分析’은 語尾에 대한 體系的인 分類와 分析의 限界에 대한 爭點을 다룬 것이고 ‘語尾끼리의 結合’은 특히 先語末 語尾에 焦點을 둔 것이다.

(5라)의 ‘派生法’에서 ‘派生法과 派生 接辭’는, 派生法이 派生 接辭의 概念과 範圍에 크게 左右되므로 派生 接辭의 實體를 把握하는 데서 오는 爭點을 위한 것이고 ‘接頭 派生法’은 接頭辭의 類型에 대한 論議의 多樣性を 살피기 위한 것이다. ‘接尾 派生法’은 ‘-이’, ‘-답-’을 中心으로 하여 形成 方法과 通時的 發達 段階를 考察하기 위해 提示한 것이며 ‘非接辭 派生法’은 ‘零派生’과 ‘內的 派生’에 該當되는 爭點을 整理하기 위한 것이다. ‘合成法’에서 ‘合性法과 合成語’는 合成語의 分類와 句와의 區分에 있어 發生하는 爭點을 위한 것이며 ‘合成語에 대한 具體的 논의들’은 合成 名詞에서의 사이시옷에 관련된 爭點이 中心을 이룬다. “X하다 構成”은 ‘하다’의 性格 規定과 관련된 爭點을 위한 것이다.

(1바)의 시정곤(2002)에서는 現代形態論을 對象으로 限定하여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形態論의 課題를 提示하고 있다.

(6) 가. 현상적인 측면의 연구 - 어디까지가 형태론인가?

나.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 - 국어의 형태 이론은 무엇인가?

다. 체계적인 측면의 연구 - 문법 내 형태론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 응용적인 측면의 연구 - 학제간 연구에서 형태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6가)는 形態論의 關心事 즉 形態論의 範圍에 대한 問題가 主를 이룬다. 즉 生成 文法の 影響으로 한국어의 屈折은 形態論의 領域에서 멀어지고 單語 形成이 形態論의 주된 領域으로 變化하였기 때문에 領域의 側面에서만 보면 形態論의 領域이 縮小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의 核心은, 屈折은 形態論의 領域임이 分明하다면 果然 한국어에 屈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論議를 集中해야 한다는 점이다. 單語 形成에 있어서는 規則에 의한 接近 이외에 類推에 의한 接近을 紹介하면서 萬若 類推에 의해 單語 形成을 說明하게 되면 類推는 心理的 實在를 重視한다는 점에서 規則에서 言及하였던 派生, 複合과 같은 개념보다 登載, 貯藏과 같은 개념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6나)는 한국어에 맞는 우리 形態 理論은 과연 存在하는가 하는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接辭 結合의 特性和 原理, 單語 形成의 特性和 原理, 語彙部 辭典의 登載 樣相, 辭典에 登載된 要素와 單語 形成 要素와의 相關性を 밝히고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理論的 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6다)는 形態論이 音韻論이나 統辭論, 意味論과 같은 다른 領域과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가령 形態素의 交替는 形態素의 確認이 중요한 構造主義 時代에서는 形態論의 領域이라고 할 수 있지만 形態素의 結合이 중요한 生成 文法の 側面에서는 자연스럽게 音韻論으로 자리를 내 주는 形勢를 취하는 것이 一般的인 흐름이라 할 수 있었다. 派生語나 複合語에 나타나는 다양한 音韻 現象도 이러한 側面에서 形態論과 音韻論 사이의 관련에 대한 立場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統辭論과는 屈折이 가장 대표적으로

關聯 現象이라 할 수 있고 屈折 要素 즉 統辭的 要素가 介入된 單語 形成의 問題도 形態論이 統辭論과 관련하여 問題를 提起하는 部分이라고 하였다. 한편 單語 形成의 結果는 典型的으로 ‘語彙’이므로 語彙와 관련된 意味論도 形態論과 관련되는 部分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語彙部의 辭典에 대한 探究도 어느 領域에서 다루어야 할지 問題가 된다고 보았다.

(6라)는 앞으로 形態論이 다른 學制와의 協力 속에서 電算形態論, 認知形態論, 言語障礙形態論, 遺傳形態論 등의 應用形態論으로 發展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1자)의 장윤희(2010)은 國語學會 創立 50주년 기념 特輯으로 이루어진 共同討論의 結果物이다. 따라서 檢討 對象은 그동안 學術紙 『국어학』에 실린 것들을 주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提示된 爭點들도 『국어학』에 실린 論文들을 통해 歸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形態에 대한 通時的 研究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 이러한 傾向을 代表한다. 또한 연구 成果를 眺望하는 데 1차적인 目標가 있었던 만큼 爭點보다는 ‘主題’라는 말로 그동안의 形態論 研究 成果를 要約하고 있다. 다음은 장윤희(2010: 337)에서 提示된 形態論 연구의 主題들이다.

- (7) 가. 형태소 및 형태론 이론 - ① 형태소의 식별과 분석, ② 이형태 교체론, ③ 형태소의 형성과 변화, ④ 형태론 이론 및 연구사
- 나. 조어론 - ① 단어의 구조, ② 합성법, ③ 파생법, ④ 한자어 형태론, ⑤ 어휘부론
- 다. 굴절론 - ① 조사, ② 어미

‘爭點’은 ‘밝혀지거나 論議된 것’이 아니라 ‘밝혀야 할 것이나 論議할 것’이라는 점에 焦點을 두어 (7)에서 장윤희(2010)이 提示한 爭點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8) 가. 화자들이 인식하는 활성화 형태소의 실현형에 대한 인식과 거리가 있는 형태소의 분석(7가①)

- 나. 형태소의 개념과 상충되는 공형태소의 인정 여부(7가①)
- 다. 개념과 문법 기술 내용의 상관성(7나③)
- 라. 한자어 형태론에서의 고유어 및 외래어 형태론과의 동일성과 차별성(7나④)

(8가)는 假令 ‘-으면’에 들어 있는 ‘-음’을 더 分析할 수 있는가와 같은 問題를 提起한다. (8나)는 ‘空形態素’와 관련된 一連의 論爭들이 주로 空形態素를 設定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理論 內的인 問題에만 集中된 느낌이 있으므로 이보다는 空形態素를 設定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要因 또는 이러한 개념을 設定함으로써 얻어지는 文法 記述의 利得이 있는지 與否를 밝히는 것이 解決되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8다)는 ‘語根, 語幹, 語基’ 등의 개념이 文法 記述 內容과 直結된다는 점에서 개념에 대한 苦悶이 매우 重要하다는 점에서 提起된 것이다. (8라)는 ‘신여성’의 ‘신’이 ‘신문’, ‘신 가전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處理를 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接辭性を 지닌 것으로 把握되는 要素들이 있다면 그 接辭性を 判斷하는 問題나 處理 方式에 대한 苦悶으로 具體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차)의 이홍식(2012)은 『국어국문학』 창간 6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국어국문학』에 실린 國語學 分野의 論議들을 살펴본 것이다. 이홍식(2012)에서 形態論의 연구 成果를 살피기 위해 제시한 分野는 다음과 같다.

#### (9) 가. 일반

- 나. 조어론 - ① 단어 형성, ② 복합어, ③ 형태소와 접사, ④ 형태 범주
- 다. 굴절론 - ① 곡용, ② 활용, ③ 조사, ④ 어미
- 라. 품사론 - ① 일반, ② 체언, ③ 용언, ④ 수식언, ⑤ 독립언 · 관계언
- 마. 기타

그러나 장윤희(2010)과는 달리 연구 成果를 整理하는 데 焦點이 있어 爭點이 提示되어 있지는 않다.<sup>3)</sup> 이는 장윤희(2010)이 ‘形態論’을 焦點으로 둔

데 비해 이홍식(2012)는 形態論을 包含한 國語學 全 分野를 念頭에 둔 때  
문으로 理解할 수 있다.

2. 形態論의 微視的인 爭點

(1사)의 고재설(2007)은 노명희(2005)를 對象으로 漢字語 形態論 연구의  
課題에 대해 點檢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漢字語는 뜨거운 감자여서 度  
外視하기에는 너무 많이 쓰이고, 연구를 하자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루  
어야 할지 막막해진다고 하면서 노명희(2005)의 연구적 價値를 評價하는 것  
으로부터 論議를 시작하였다. 고재설(2007)에서 노명희(2005)를 통해 提示  
한 漢字語 形態論의 연구 限界는 크게 ‘연구의 立場과 관계되는 것’과 ‘術  
語의 問題’ 두 가지이다. 먼저 ‘연구의 立場과 관계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  
은 問題를 爭點化하여 다루었다.

(10) 가. 分類학적 연구의 의의와 한계

나. 機能주의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

(10가)는 노명희(2005)의 論議를 ‘漢字語들이 單語 形成에 참여하는 方式  
에 따라 個別 漢字語들을 여러 가지로 分類한 것’이라고 보고 이 過程에서  
는 나타나는 ‘强活性 語根’, ‘弱活性 語根’ 등이 가지는 개념적 定義가 가지

3)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홍식(2012: 110)에서 제시된 다음의 통계 자료이다.

연대 분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합계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일반	0	0	2	18.2	0	0	0	0	0	0	1	10	3	5.3
굴절론	3	60	2	18.2	3	25	2	16.7	0	0	1	10	11	19.3
조어	0	0	3	27.3	5	41.7	4	33.3	4	57.1	6	60	22	38.6
품사론	2	40	4	36.4	4	33.3	5	41.7	3	42.9	1	10	19	33.3
기타	0	0	0	0	0	0	1	8.3	0	0	1	10	2	0.4
합계	5	100	11	100	12	100	12	100	7	100	10	100	57	100

이홍식(2012: 110)에서도 言及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全體的으로는 造語, 品詞論 分野의  
연구가 특히 活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造語論 연구는 漸次 增加하고 있는 데 비해 品  
詞論은 2000년대 들어 減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는 意義와 限界를 통해 分類學的 연구가 單語 形成의 原理를 提示할 수 있는 체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10나)는 노명희(2005)가 漢字語 하나하나의 기능에 초점을 둬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分析의 측면에서는 그 成果가 높지만 여러 現象들 사이의 相關關係를 捕捉하는 데는 問題가 있음을 指摘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術語의 問題’로 提示한 것은 다음과 같다.

(11) 가. ‘어근’ 개념의 한계

나. ‘구’ 개념의 문제

다. ‘생산성’ 개념의 모호함과 그 적용의 자의성

라. ‘관형사’의 문제

(11가)는 노명희(2005)에서 提示된 다양한 語根 개념이 實際로는 文章에서 獨立的으로 使用되는 것들이 있어 개념의 一貫性を 確保하고 있는지에 대한 問題를 提起한 것이다. (11나)는 (11가)의 問題와 연관되는데 語根과 單語가 結合한 것도 句라면 句의 개념에 修正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다)는 노명희(2005)에서 生産性を 주로 接辭가 結合하여 形成된 單語의 數에만 依存하고 있음을 指摘한 것이다. (11라)는 漢字語 冠形詞로 提示된 ‘全’, ‘現’ 등이 典型的인 固有語 冠形詞 ‘이, 그’나 ‘새’와 統辭的 行動方式에 差異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고재설(2007)에서는 文法性的 判斷에서 差異가 보이는 ‘資料의 適格性 問題’와 ‘化’, ‘視’, ‘然’ 등이 固有語의 ‘하다’, ‘시키다’, ‘되다’, ‘當하다’와 差異를 보인다는 점에 根據하여 이들 ‘敍述性 接尾辭’의 機能과 관련되는 問題도 提示하였다.

(1아)의 송원용(2010)은, 副題에서도 明示된 바와 같이, 類推論者와 規則論者의 論爭에 焦點을 두고 있다. 송원용(2010)에서는 類推論者와 規則論者의 論爭을 크게 세 段階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 段階는 類推를 基盤으로 한 形態 理論의 初期에 ‘X-음’형 單語의 形成과 單語 개념을 媒介로 이루어진 部分的 論爭이고 둘째 段階는 類推論者가 語彙部 中心의 形態論

을 本格的으로 主張하면서 規則論의 問題를 指摘하고 規則論者가 規則의 必要性和 正當性を 擁護하면서 類推論을 批判한 全面的 論爭이다. 셋째 段階는 全面的 論爭을 통해 確認된 理論的 態度的 差異가 單語 形成의 具體的 樣相과 관련하여 爭點을 發掘해 가는 段階이다. 송원용(2010: 19)에서는 規則論과 類推論의 爭點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提示하고 있다.

(12) 가. ‘갈림길, 생김새’의 ‘갈림’과 ‘생김’은 명사형인가? 명사형과 명사의 중간 범주인가?

나. ‘고기잡이’류 단어에서 형성되는 유추의 틀의 구조는 [[[N]잡]이]인가? [[N][잡이]]인가?

다.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는 중추적 역할을 가지는가?

라. 유추의 틀은 귀납적 규칙인가?

마. 단어 형성은 공시적 과정인가? 통시적 과정인가?

바. 형태론과 통사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論爭이 2000년대에 들어 다음과 같은 主題로 擴散되고 있다고 보았다.<sup>4)</sup>

(13) 가. 어휘부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논쟁

나. 어휘부 등재소의 유형과 등재 방식에 대한 논쟁

다. 단어 형성의 통시성에 대한 논쟁

라. 임시어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쟁

마.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에 대한 논쟁

바. 단어 형성법 체계의 수립에 대한 논쟁

사.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논쟁

(13사)의 ‘生産性’도 單語의 形成과 관련된 論議라는 점에서 (13)은 規則

4) 송원용(2010: 22)에서는 (13)의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 成果까지 提示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과 類推가 ‘單語 形成’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爭點으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카)의 유현경(2013)은 ‘參照 文法’, ‘規範 文法’의 意味를 가지는 ‘標準 文法’의 開發을 위한 基礎 연구 報告書인데 ‘標準 國語 文法의 內容 記述 關聯 微視的 爭點’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形態論의 爭點으로 提示한 바 있다.

#### (14) 가. 형태소와 단어

- ① 한자어 분석
- ② 형태소 분류의 기준
- ③ 조사와 어미의 지위

#### 나. 품사

- ① 품사의 종류와 개수
- ② 대명사/수사의 품사 설정
- ③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
- ④ ‘있다’와 ‘없다’의 품사
- ⑤ 불규칙 활용의 범위
- ⑥ 수관형사의 설정
- ⑦ 체언 수식 부사의 지위
- ⑧ 접속 부사의 지위
- ⑨ 조사 및 격조사의 종류와 개수
- ⑩ ‘이다’의 품사
- ⑪ 격조사의 비격조사적 용법
- ⑫ 조사의 생략
- ⑬ 조사 통합의 불완전성
- ⑭ 감탄사와 간투사의 문제
- ⑮ 품사 통용 설정 문제

#### 다. 단어 형성

- ① 단어의 구성 요소

- ② 단어의 분류
- ③ ‘해돋이’류의 분석
- ④ 한자어 조어법

(14가①)은 漢字에 形態素의 資格을 附與할 것인가 하는 問題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가②)는 形態素의 分類 基準과 관련된 問題를 위한 것인데 ‘自立性’과 ‘意味의 虛實’이 그 基準이 된다는 점에서는 큰 問題가 없지만 ‘依存 形態素’의 ‘依存性’과 ‘依存 名詞’의 ‘依存性’이 과연 同一한가 하는 점에서 ‘依存性’에 대한 論議가 필요함을 提示하기 위한 것이다. (14가③)은 특히 語尾를 單語로 認定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기 위한 것이다.

(14나①)은 現行 學校 文法の 9品詞 分類에서 ‘名詞, 代名詞, 數詞’를 모두 別個의 品詞로 둘지, ‘動詞, 形容詞’를 別途의 品詞로 둘지의 問題와 이른바 存在詞와 指定詞를 따로 設定할지 등에 대한 問題를 위한 것이다. (14나②)는 보다 자세하게 代名詞와 數詞가 品詞 分類의 基準을 中心으로 할 때 어떤 側面에서 品詞로서의 獨立性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4나③)은 動詞와 形容詞의 區別이 意味的인 基準보다 形態的, 活用的 基準에서 區別되어 왔음을 指摘한 것으로 이는 代名詞, 數詞의 區別과 一貫的이지 않을 수 있다는 問題 提起와 연관된다. (14나④)는 ‘있다’와 ‘없다’가 既存의 用言과 區別이 된다는 점과 ‘있다’와 ‘없다’가 그 自體로도 서로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어 品詞 分類에 있어 問題가 된다는 점을 提起하기 위한 것이다. (14나⑤)는 不規則 活用の 範圍와 下位 項目에서 差異를 보이는 問題를 위한 것인데 이는 不規則 活用과 관련된 異形態, 交替, 補充法 등과 같은 隣接 개념들에 대한 整理가 未洽한 것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14나⑥)은 數冠形詞가 대부분 數詞와 形態가 같아 數冠形詞를 設定하는 根據가 얻는 說明의 利點을 따져 보아야 할 必要性을 提起하기 위한 것이다. (14나⑦)은 ‘程度性’을 가지는 副詞들이 體言 앞에 위치하는 경우 이를 冠形詞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副詞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問題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나⑧)은 副詞의 下位 部類로 다루어지고 있는 接續 副詞 가운데 文章을 接續하는 副詞 외에 ‘및, 또는, 혹은’처럼 單語만 接續하는 副



詞도 文章 부사로 分類되어 있는 現行 學校 文法에 대한 問題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나 ⑨)는 助詞의 分類 體系에 따른 問題와 格助詞 가운데 副詞 格을 處所格, 道具格, 共同格, 比較格 등의 意味格으로 다루는 見解가 가지는 견해상의 不一致 問題를 提起하기 위한 것이다. (14나 ⑩)은 이른바 活用 하는 ‘敍述格 助詞’의 認定이 品詞 分類에서 不變語와 可變語를 모두 가지는 助詞를 認定해야 하는 矛盾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提起하기 위한 것이다.<sup>5)</sup> (14나 ⑪)은 格助詞가 體言과 結合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와 같이 補助詞의 分布와 一致하는 경우 이를 處理하는 데 따른 問題를 위한 것이다. (14나 ⑫)는 助詞가 ‘省略’되는 경우에 대한 環境 提示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省略’이 아니라 특수한 環境에서 ‘非實現’으로 看做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를 위한 것이다. (14나 ⑬)은 一部 體言이 그 意味的 특성으로 인해 助詞와 結合할 때 分布의 制約을 가지는 경우 이를 어떠한 制約으로 說明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4나 ⑭)는 ‘感歎詞’ 혹은 ‘感動詞’라는 用語가 感歎詞에 所屬되는 單語들을 包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包括적인 ‘間投詞’로 볼 수 있는 可能性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나 ⑮)는 하나의 單語가 여러 가지의 品詞로 쓰이는 경우 이를 ‘品詞 通用’으로 볼지 아니면 ‘品詞 轉成’으로 볼지 하는 問題를 위한 것이다.

(14다 ①)은 單語 形成 要素 가운데 ‘語基’를 設定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다 ②)는 ‘複合語’, ‘合成語’라는 用語의 一貫적인 사용과 함께 이들 외에 ‘混成語’와 같은 개념도 필요한지에 대한 問題 提起를 위한 것이다. (14다 ③)은 ‘해돋이’가 直接 成分 分析에 따라 合成語도 될 수 있고 派生語도 될 수 있으므로 分析의 問題와 함께 形成 機制도 規則과 類推 가운데 어떤 節次를 거친 것인지 하는 問題와 연결되어 있음을 指摘하기 위한 것이다. (14다 ④)는 漢字語가 語順 問題를 비롯하여 固有語와 다른 問題들을 內包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기 위한 것이다.

5) 유현경(2013)에는 音韻, 單語, 文章, 談話의 層位에 따른 19개의 爭點을 導出하여 이에 대한 標準化의 必要性을 專門家 150명을 對象으로 調査하였는데 이 가운데 全體 1위를 한 것이 바로 ‘이다’를 助詞로 볼 것인지 아니면 用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참고로 品詞와 관련된 問題는 ‘冠形詞/副詞 品詞 通用語의 問題(全體 9위)’, ‘接續詞의 品詞 選定 問題(全體 14위)’, ‘動詞와 形容詞의 區別 基準의 問題(全體 2위)’였다.

### 3. 形態論과 관련 分野와의 爭點

(1다)의 송철의(2000)은 특히 形態論과 音韻論의 相關性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側面에서 論議를 展開하고 있다.<sup>6)</sup>

- (15) 가. 형태론적 연구에 음운론적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 나. 음운론적 연구에 형태론적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 다. 형태론과 음운론이 공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가)를 위해 먼저 形態論의 地位에 대해 膠着語인 한국어에서는 形態論의 地位가 屈折語에서만큼 그렇게 確固하지 못한 側面이 있고 形態素의 交替를 形態音韻論의 所管 사항으로 돌려버리고 曲用과 活用の 問題는 統辭論으로 넘겨 버리면 單語 形成만 남게 되는데 單語 形成 規則마저 通時的인 것이라고 規定지어 버리면 共時的으로 形態論이라는 分野는 그 存在 자체가 威脅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形態論과 音韻論의 相互 關聯性을 論議하기 위해서는 우선 形態論이란 分野가 獨立的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고 하였다.

우선 形態論과 音韻論 사이에 形態音韻論이라는 別途의 下位 分野를 들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 송철의(2000)에서는 그럴 必要가 없다고 보고 있다. 形態論과 音韻論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關心 對象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形態論은 形態素가 어떻게 바뀌느냐 곧 形態素의 交替에 關心을 갖는데 音韻論은 音韻論의 單位인 音韻이 어떻게 바뀌느냐 곧 音韻의 交替에 關心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交替 가운데는 純粹하게 音韻論적인 것도 있고 純粹하게 形態論적인 것도 있지만 形態音韻論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音韻論과 形態論의 接面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形態論과 統辭論의 問題는 屈折인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屈折語와는 달리 助詞나 語尾가 句와 結合한다는 側面에서 統辭論적인 關心事

6)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즉 形態論과 音韻論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송철의(2000)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가 되지만 먼저 形態素의 交替는 句가 아니라 바로 先行 要素에 左右되므로 屈折도 形態論의 關心事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統辭論이 階層的 構造에 基盤하고 있는 데 비해 音韻 交替나 形態素 交替는 線條的 順序에 基盤하고 있는 것으로 區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曲用이나 活用の 패러다임을 參照해야 하는 現象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도 形態論에서는 可能하지만 統辭論에서는 可能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形態論의 領域을 認定해야 하는 根據가 된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는 形態論的 現象에 音韻論的 情報가 필요한 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派生語 形成에 있어서의 音韻 制約과 같은 것도 追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15나) 즉 音韻論的 現象을 記述하는 데 形態論的 情報가 필요한 경우는 音韻 交替나 音韻 變化가 音韻論的으로만 說明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찾았다. 가령 해당 音韻이 形態素 內部, 形態素 境界, 形態素 內部라 하더라도 語幹 形態素 內部인지 語尾 形態素 內部인지에 따라 變化의 樣相이나 時期가 다른 경우나 音韻 規則의 發生 過程, 擴大 過程, 縮小 過程 등을 論議할 때 形態論的 條件을 考慮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音韻 現象을 論議할 때 曲用과 活용을 區別해야 하는 경우도 이에 該當한다고 하였다.<sup>7)</sup>

이 외에도 송철의(2000)에서는 派生을 中心으로 音韻論과 形態論에서 共時性和 通時性이 論議될 때 제일 問題가 된다는 점을 言及하고 있다. 音韻論的 觀點에서는 派生을 通時的인 것으로 보려는 傾向이 있으나 人間의 能力 中에는 單語 形成 能力도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므로 派生을 全的으로 通時的 現象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言語能力이 共時性を 前提로 하는 것이라는 觀點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1라)의 시정곤(2000가)는 情報化 時代의 言語研究의 特성을 다음과 같

7) 이에 대해서는 基底形의 變化로 曲用과 活用에서의 音韻 現象의 差異를 說明하려는 見解도 提示하고 있다. 基底形의 變化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안대[안때]’의 硬音化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活用이라는 環境의 差異로 보는 대신 ‘안ㅎ-’과 같은 基底形을 設定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ㅎ’의 設定에서부터 시작하여 ‘ㄹㅎ-’의 경우는 語幹末에 3개의 子音群을 設定해야 한다는 問題 등이 提示된 바 있다.

은 세 가지 側面으로 整理하였다.

(16) 가. 순수학문에서 응용학문으로

나. 인간을 위한 언어연구에서 기계를 위한 언어연구로

다. 연역적 방법의 언어연구에서 귀납적 방법의 언어연구로

먼저 (16가)는 언어연구의 方向이 바뀌었다기보다는 應用의 側面이 새롭게 浮刻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리고 應用의 側面은 곧 學制間 연구의 필요성으로 解釋될 수 있다고 하였다. 情報學은 이러한 側面에서 國語學과 電算學의 만남으로 理解될 수 있다.

다음으로 (16나)는 自然言語處理가, 人間言語의 연구가 例外的이거나 特異한 現象에 焦點을 맞추는 대신 基礎的이고 一般的인 現象을 于先 對象으로 삼는 데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16다)는 純粹 國語學이 言語的 直觀을 爲主로 하고 있는 데 비해 自然言語處理를 위한 應用 國語學은 大量的의 言語 資料를 對象으로 연구를 進行한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國語學者의 任務는 이러한 大量的의 言語 資料 즉 말뭉치에서 規則性을 發見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側面에서 시정곤(2000가)에서 새롭게 提示된 形態 연구의 새 課題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7) 가. 기초언어자료 구축을 위한 형태연구

나. 기계번역을 위한 형태연구

(17가)에 대해서는 ‘태강’ 作業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태강’된 言語 資料를 活用하는 여러 가지 方法을 紹介하였다. (17나)는 무엇보다 電子辭典 構築을 위한 必須作業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電子辭典의 개념을 紹介하고 그 位相에 대한 言及과 함께 具體的인 電子辭典의 論理構造를 종이辭典과 比較하여 提示하였다.

### III. 爭點의 分類와 再爭點化

2장에서는 ‘爭點’을 形態論 全般의 包括的인 觀點에서 提示된 것과 部分的인 觀點에서 提示된 것 그리고 관련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包括的인 觀點에서의 論議에서도 部分的인 爭點이 紹介되어 있고 반대로 부분적인 觀點에서의 論議도 包括的인 爭點이 紹介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包括的인 論議나 部分的인 論議에서도 關聯分野에 대한 問題 提起도 包含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關聯性을 가지는 爭點의 導出을 위해 2장에서의 爭點들을 몇 가지로 分類할 필요가 있다.

먼저 形態論의 範圍와 관련된 爭點을 提示한 論議이다.

(18) 가. 형태론의 범위 문제[구본관(2002), 시정곤(2002), 유현경(2013)]

나. 형태론과 다른 영역과의 문제[시정곤(2002), 송원용(2010), 송철의(2000), 시정곤(2000가)]

다.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수성 규명 문제[송철의(1997), 홍중선(1998), 구본관(2002)]

여러 論議들을 통해 言及된 바와 같이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 形態論은 浮沈이 매우 심하였다. 文法이 곧 品詞論과 同質視되고 品詞論을 形態論의 領域이라고 본다면 文法 연구에서 가장 큰 比重을 形態論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던 時期가 있었지만 形態論이 生成 文法の 導入에 따라 品詞論에 대한 關心이 떨어지고 文章을 만드는 規則이 單語도 만들 수 있다고 보게 되고 形態素의 交替도 音韻論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게 되면 形態論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形態論은 그 自體의 存立 根據에서부터 한국어에서의 形態論의 特殊性을 糾明하는 同時에 다른 領域과의 關係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爭點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形態論이 그 位相과 함께 언어 普遍的인 定義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반대로 形態論이 그 位相과 함께 언어 個別的인 定義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한국어를 포함하는 形態論의 普遍的인 定義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形態論의 範圍를 논할 수 있고 한국어만의 形態論이 獨自的으로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形態論의 範圍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8)에서提起된 爭點은 곧 ‘形態論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包括的인 질문으로 再爭點化할 수 있다고 判斷된다. 이에 대한 對答에 따라 形態論의 範圍가 정해지고 다른 領域과의 關聯性도 具體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形態論의 單位와 관련된 爭點을 들 수 있다.

(19) 가. 형태론에서의 용어의 문제[송철의(1997), 홍중선(1998), 고재설(2007)]

나. 형태소의 정의와 분석 문제[홍중선(1998), 구본관(2002), 장윤희(2010), 유현경(2013)]

다. 단어의 정의 문제[구본관(2002), 유현경(2013)]

흔히 形態論의 單位로 일컬어지는 것은 形態素와 單語라는 사실에 큰 異見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形態素의 경우는 分析 方法과 그에 따른 分析의 限界가 爭點이 되어 왔다. 또한 零形態素 zero morpheme의 認定은 單語 形成의 零派生 zero derivation과 관련하여 問題를提起해 왔고 零形態素가, 意味는 있지만 形態가 없다는 점에서 形態素의 定義를 덜 威脅하는 데 비해 形態는 있지만 意味는 없는 空形態素 empty morpheme의 認定 問題는 더 深刻한 問題를提起하고 있다. (19가)의 用語 問題는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語根, 語幹, 語基’, ‘接辭’ 등의 問題로 대표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18)에서 提示된 形態論의 範圍 問題와도 연관된다. 즉 單語 形成과 文章 形成을 區別하고 그에 따라 이들 用語를 定義하는 問題는 統辭論과 관련되며 助詞나 語尾 등을 形態素 交替와 관련하여 論議하게 되면 音韻論과도 관련된다.

(19다)의 單語의 定義 問題는 形態論에서 가장 큰 爭點으로 浮上해 왔다. 우선 前述한 바와 같이 單語 内部의 音韻 現象에 따라 論議를 전개할 때는

音韻論과 연관되며 文章 形成의 최소 單位로 單語를 論議하게 될 때는 統辭論과 연관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單語의 定義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形態論 자체의 範圍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9)에서 提示된 爭點은 다시 ‘形態素란 무엇인가?’와 ‘單語란 무엇인가?’라는 包括的인 觀點에서의 再爭點化가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單語란 무엇인가?’하는 問題는 다시 ‘單語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하는 問題와 ‘單語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하는 問題로 細分化할 수 있다. 다음의 (20)의 爭點들은 이러한 점에서 ‘單語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관련된 爭點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홍식(2012: 110)의 統計 資料에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問題가 ‘單語 形成(전체의 35.1%)’의 問題이고 2000년대 들어서도 가장 많은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는 問題도 또한 ‘單語 形成(2000년대 논문의 60%)’의 問題라고 할 만큼 單語 形成에 대한 爭點도 다양하게 提起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 가. 단어 형성에서의 통시성 문제[송철의(1997), 송원용(2010)]

나. 단어 형성의 기제 문제[홍중선(1998), 송원용(2010)]

다. 한국어 단어 체계와 구조 분석 문제[홍중선(1998), 구본관(2002), 송원용(2010)]

라. 단어 형성의 생산성 문제[고재설(2007), 송원용(2010)]

마. 어휘부의 조직과 구조 문제[홍중선(1998), 송원용(2010)]

(20)은 다시 文章 形成과 差異가 나는 單語 形成의 問題((20가))와 單語 形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따지는 問題((20나)) 등을 包含한다. 한국어 單語의 體系나 構造가 가지는 特殊性에 대한 問題((20다)), 單語 形成에서의 生産性 問題((20라))에 대해서도 많은 論議와 함께 問題 提起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語彙部’의 組織 및 그 役割((20마))에 대해서는 文法에 대한 模型과 함께 語彙部の 力動的인 位相 問題로 結果된 바 있다.

한편 ‘單語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하는 問題는 곧 品詞 分類와 관련된 爭點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21) 가. 품사 분류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홍중선(1998), 유현경(2013)]

나. 품사 분류의 실제 문제[홍중선(1998), 구본관(2002), 유현경(2013)]

前述한 이홍식(2012: 110)의 表에 따르면 品詞와 관련된 論議는 33.1%로 單語 形成의 問題 다음이지만 2000년대에는 10%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目的에 따라 品詞와 관련된 問題는 여전히 그 重要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學校 文法을 包含하여 敎育과 관련된 論議에서는 유현경(2013)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品詞와 관련된 問題의 比重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21가)는 특히 한국어의 品詞 分類에서 그 基準과 관련하여 適用의 優先 順位나 一貫性을 따지는 問題를 包含하고 있으며 (21나)의 品詞 分類의 實際는 과거로부터 이어 온 品詞 分類의 具體的인 問題들이 全面的이라기보다는 具體的인 單語의 品詞 地位 附與에 있어서 어떻게 適用될 것인지를 따지는 問題로 表面化된다. 중요한 것은 ‘助詞와 語尾’ 問題가 如前히 品詞 分類의 實際 問題에서 논쟁의 中心에 서 있는 만큼 ‘單語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品詞 分類와 直接的인 關聯性을 갖는다는 사실을 捕捉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漢字語와 관련된 問題를 따로 爭點으로 묶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漢字語는 形態素의 分析 問題에도 걸리므로 (19)의 問題 提起와도 관련이 있으며 單語 形成에서도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의 爭點들과도 密接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漢字語가 가지는 特殊性은 특히 다음과 같이 獨自的으로 爭點化하기에 充分하다고 할 수 있다.

(22) 가. 한자어의 구조 분석과 형성 문제[홍중선(1998), 고재설(2007)]

나. 한자어 형태론의 고유성 문제[장윤희(2010), 유현경(2013)]

(22가)는 특히 漢字의 形態素性, 漢字語의 分類와 單語 形成에서의 特殊性을 위한 것이고 (22나)는 이를 參考할 때 과연 漢字語와 相關한 問題를 別途의 體系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漢字



語 形態論의 位相은 어떠한가?’ 程度로 再爭點化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IV. 爭點에 대한 所見 - 爭點의 聯關性を 中心으로

3장에서는 2장에서의 論議를 바탕으로 그동안 論議된 爭點들을 包括적으로 다음과 같이 再爭點化하였다.

(23) 가. 형태론이란 무엇인가?

나. 형태소란 무엇인가?

다. 단어란 무엇인가?

라.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 단어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바. 한자어 형태론의 위상은 어떠한가?

이제 여기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소견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 1. 形態論이란 무엇인가?

前述한 바와 같이 송철의(1997)에서는 形態論을 ‘單語를 分析하여 그 내부 構造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單語의 生成 規則을 밝히는 연구 分野’로 定義한 바 있다. 이를 보면 形態論은 ‘單語의 構造와 形成’을 問題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單語를 分析하여 그 內部 構造를 밝힌다고 했을 때의 內部 構造는 ‘音韻’까지가 아니라 ‘形態素’까지 임에 注意할 필요가 있다. 즉 形態論은 단위의 觀點에서 形態素와 單語가 연구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形態論의 定義는 또한 한국어에만 局限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形態論의 定義를 한국어 特殊的으로 制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라면 ‘한국어만의 形態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形態論의 특징’이 浮刻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形態論도 形態素와 單語를 對象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形態素를 基準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現象이 形態論의 範圍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24) 가. 형태소의 교체

나. 형태소의 결합

(24가)는 形態素가 抽象的 개념으로서 具體的으로는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前提한다. (24나)는 形態素의 結合이 곧 ‘單語’로 結果될 수도 있으므로 注意할 필요가 있다. 다음 例文을 통해 이러한 問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5) 가. 땅에 돌이 많다.

가'. 진흙땅에는 돌가루가 많지 않다.

가". 돌질에 창문이 깨졌다.

나. 돌이/배가

다. 먹으니/가니

(25가)에서 ‘땅’과 ‘돌’은 文章 形成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 ‘땅’과 ‘돌’은 그 地位가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 ‘땅’과 ‘돌’은 모두 單一 形態素이지만 形態素는 그 자체로 文章에 참여할 수 없다. 文章 形成의 最小 單位는 單語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땅’과 ‘돌’은 單一 形態素로 이루어진 單語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于先 (25가')과 (25가")은 ‘땅’과 ‘돌’의 地位가 (25가)와 같지 않다. 즉 (25가'), (25가")에서 文章에 參與하고 있는 單語는 ‘땅’과 ‘돌’이 아니라 ‘진흙땅’과 ‘돌가루’, ‘돌질’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땅’과 ‘돌’이 모두 單語의 資格이 아니라 形態素의 資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흙땅’과 ‘돌가루’, ‘돌질’에서의 ‘땅’과 ‘돌’은 形態素의 結合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形態論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5나)를 보면 問題가 복잡해진다. ‘돌이’, ‘배가’에서 ‘이’와 ‘가’는 서로 異形態 關係에 있다. 즉 (24가)에서 提示한 形態素의 交替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形態素의 交替는 文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單語 內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돌이’와 ‘배가’가 單語임을 意味하는 것임을 結論짓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記述은 (25가)의 ‘땅에’, ‘돌이’에서 ‘땅’과 ‘돌’을 單語라고 한 것과 矛盾된다. ‘돌이’와 ‘배가’가 單語라면 ‘땅에’와 ‘돌이’도 單語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理由는 무엇일까? 이것은 文章 形成의 最小 單位인 單語와 形態素의 結合 結果인 單語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25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먹으니’와 ‘가니’에서 ‘-으니’와 ‘-니’의 形態素 交替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먹으니’와 ‘가니’는 모두 單語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sup>8)</sup>

이상과 같은 사실은, 形態論을 (24)를 對象으로 하는 言語學의 分野로 看做한다면 적어도 한국어의 形態論은 ‘진흙땅’, ‘돌가루’, ‘돌질’과 같은 形態素의 結合뿐만이 아니라 ‘돌이’, ‘배가’, ‘먹으니’, ‘가니’처럼 形態素의 交替가 일어나는 것들도 모두 對象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하고 ‘돌이’, ‘배가’와 마찬가지로 ‘먹으니’, ‘가니’도 形態素 結合의 結果物로서 모두 單語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結論짓게 한다.

이러한 結論은 形態論을 ‘單語의 내부 構造에 대해 다루는 部門’, ‘形態素들이 結合하여 단어를 만드는 方法을 다루는 部門’으로서 普遍的인 定義를 可能하게 하되 한국어는 한국어 單語의 特性으로 인해 그 範圍가 統辭論의 單語와 區別되는 部分이 생기게 된다고 言及하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이는 곧 形態論의 結果物인 單語와 統辭論의 出發點인 單語가 한국어에서는 서로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4.3에서 後述하기로 한다.

8) 이러한 불일치 問題를 앞서 송철의(2000)에서는 統辭論이 계층적 構造에 기반하고 있는 데 비해 音韻 交替나 形態素 交替는 선조적 순서에 기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를 ‘單語 개념의 差異’로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도 形態論의 地位는 否定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音韻論과 形態論이 연관되는 것은 分明하지만 송철의(2000)의 論議대로 그 焦點은 確연히 區別된다고 할 수 있다. (25나, 다)에서 ‘이’와 ‘가’의 交替나 ‘-으니’와 ‘-니’의 交替에는 분명히 ‘子音 다음’, ‘母音 다음’이라는 ‘音韻’이 關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形態論에서의 關心은 一次的으로 이들 形態素가 ‘交替’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고 音韻論에서의 關心은 ‘子音’이나 ‘母音’과 같은 環境에 있기 때문이다.

形態論과 統辭論의 區別도 마찬가지로 論理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形態論에서 (25나, 다)에 關心을 가지는 것은 가령 ‘돌이’, ‘먹으니’처럼 形態素의 交替가 일어나는 ‘單語 内部’일 뿐이고 이것이 ‘[[큰 돌]이]’, ‘[[잘 먹으니]’와 같이, 즉 ‘이’나 ‘-으니’가 單語보다 큰 單位와 結合하는 統辭的 現象에 關心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音韻論에서 ‘돌이’를 ‘體言과 助詞의 結合’ 대신 ‘體言 語幹과 體言 語尾의 結合’, ‘먹으니’를 ‘語幹과 語尾의 結合’ 대신 ‘用言 語幹과 用言 語尾의 結合’처럼 共通的으로 ‘語幹’과 ‘語尾’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形態素 交替가 일어나는 單語임을 인식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sup>9)</sup> 助詞는 單語로 認定되는 일이 많은데도 音韻論의 論議에서 특히 ‘曲用’을 言及하는 일이 많은 것도 같은 理由에서 理解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體言과 助詞의 結合’과 ‘語幹과 語尾의 結合’은 마치 ‘진흙땅’, ‘돌가루’, ‘돌질’이 形態論의 對象인 것과 마찬가지로 形態論의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結果로서의 ‘單語’가 가지는 地位가 서로 같지 않다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어 形態論이 그 範圍와 關連하여 가지는 特殊性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이는 한국어 形態論의 範圍를 구분관(2002), 장윤희(2010) 등에서 ‘形態素의 分析과 交替, 屈折論, 造語論’ 등으로 나눈 것과 그 範圍가 結果적으로 一致한다. 이홍식(2012)과 유현경(2013)에서는 여기에 ‘品詞論’을 더 넣었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品詞도

9) 이러한 점에서 共時形態論은 體言과 助詞의 結合, 語幹과 語尾의 結合에 한정된다고 본 최명옥(2008)의 論議가 가지는 意味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0) 그러나 이것이 한국어에서 ‘屈折’을 認定한다는 것으로 誤解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後述하기로 한다.

形態論과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單語’가 形態論의 關心事 안에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形態素란 무엇인가?

多幸스럽게도 形態素의 定義 그 자체가 爭點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形態素는 ‘意味를 가지는 最小 單位’로서 다른 언어 單位보다 매우 뒤늦게 등장한 것도 상대적인 定義의 완성도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sup>11)</sup>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形態素를 확인하는 問題, 그리고 어디까지 形態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는 적지 않은 爭點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形態素의 확인 問題는 形態素의 分析 問題와도 密接한 연관을 맺는다. 그런데 이때 形態素의 確認이나 分析은 일정한 목적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이란 §4.1에서 言及한 形態論의 範圍와 연관된다. 形態論의 範圍란 (24)에서 提示한 ‘形態素의 交替’와 ‘形態素의 結合’이다. 形態素의 確認도 바로 이 ‘形態素의 交替’와 ‘形態素의 結合’을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交替’와 ‘結合’에 참여하는 形態素란 ‘意味’ 즉 ‘機能’을 가지고 있는 形態素에 局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機能’이란 엄밀하게 어떤 시기를 基準으로 共時性を 前提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分析 가능성에 共時성과 通時性이라는 差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다음 예들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26) 가. 살다/사람, 믿다/미답다

나. 밤잠/가을고치

다. 먹었다/먹는다/먹겠다

다'. 먹었느냐/먹느냐/먹겠느냐

11) 言語學에서 形態素의 登場은 Bloomfield(1933)부터라고 言及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이른 時期부터라고 言及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9세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어에서는 이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 주시경(1914)의 ‘뜻씨’라는 데 大體적으로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지만 역시 그 淵源이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가)의 ‘사람’은 ‘사름’의 현대형인데 이 ‘사름’은 ‘살-+ -음’으로 分析이 된다. 즉 ‘-음’은 그 機能이 動詞를 名詞로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形態素의 資格을 가지지만 이러한 分析은 현대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에는 ‘-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살-’과 ‘-암’으로 分析할 수 없고 分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이 그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고 前提되는 시기에 限定된다. 즉 현대에서 ‘-음’을 分析하는 것은 현대 한국어를 基準으로 通時的인 形態素 分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믿다’와 ‘미답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된다. ‘믿다’를 形容詞로 派生시키는 接尾辭 ‘-업-’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機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 ‘미답-’을 ‘믿-+ -업-’으로 分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共時的인 觀點이 아니라 通時的인 觀點을 통해서뿐이다.<sup>12)</sup> 이러한 側面에서 보면 形態素 分析의 限界 問題에는 共時性和 通時性的의 區別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오는 混亂도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6나)는 사이시옷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語彙的 單語 內部에서만 나타나고 또한 그 意味 關係에 따라 出現을 豫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보통 ‘A가 B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사이시옷이 出現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밤잠’) 그렇지 않은 경우(‘가을고치’)도 적지 않다.<sup>13)</sup> 사이시옷이 助詞였을 경우에는 獨自的인 ‘機能’을 가지는 形態素였음을 否定하기 어렵지만 語彙的 單語 內部에서만 나타나고 또한 出現을 豫測하기 어려운 狀況에서는 결국 ‘機能’을 特定할 수 없기 때문에 形態素의 資格을 附與하기가 어려운 것이다.<sup>14)</sup>

(26가)에서의 ‘-음’, ‘-업-’은 원래부터 單語 形成에 關與하는 要素로서 그 機能이 사라진 것이라면 (26나)의 사이시옷은 文章 形成에 參與하던 要素가 單語 形成에서만 觀察된다는 差異가 있다. 이에 비하면 (26다, 다’)의

12) ‘사람’을 ‘살암’으로, ‘미답다’를 ‘믿업다’로 적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語彙的인 單語 形成에서 새로운 單語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생산성’이라고 할 때 ‘-암’과 ‘-업-’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생산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3) 이러한 사이시옷 출현의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에 대해서는 김창섭(1996: 49~52)에 자세하다.

14) 形態素의 定義的 屬性에 따라 현대 한국어에서 사이시옷에 形態素의 資格을 附與하기 어렵다는 論議는 우선 최형용(2009가)를 參考할 것.

語尾 ‘-느-’는 원래부터 文章 形成에 參與하던 요소가 그 形態素性을 잃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26다)에서는 語尾 ‘-었-’, ‘-느-’, ‘-겠-’이 系列 關係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느-’은 現在 時制의 ‘機能’을 가지고 形容詞와 結合할 수 없다는 制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現代 韓國어 共時的으로도 形態素의 資格을 부여하는 데 問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6다’)에서는 ‘-느-’의 異形態 ‘-느-’가 이러한 形態素의 資格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sup>15)</sup> 過去를 나타내는 ‘-었-’과도 結合이 가능하고 形容詞와도 結合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結果적으로 ‘-느-’는 現代 韓國어를 基準으로 할 때 形態素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共存하는 셈이 된다.

形態素 分析의 側面에서 보면 (26가, 나, 다’)의 경우는 該當 形態素를 現代 韓國어를 基準으로 볼 때 分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은 零形態素와 空形態素의 問題이다. 먼저 零形態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接尾辭와 관련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語尾와 관련된 경우이다.

(27) 가. 오늘(명)/오늘(부)

나. 먹는다/예쁘다

먼저 (27가)는 名詞와 副詞로 사용되는 ‘오늘’의 예를 든 것인데 이때 品詞가 變化하는 過程을 다음과 같이 單語 形成의 側面에서 捕捉하는 이른바 零派生의 경우에 零接尾辭의 설정이 問題될 수 있다.

(28) 오늘(명) + Ø(영접미사) → 오늘(부)

15) 이미 口語에서는 ‘먹었느냐, 먹겠느냐’가 ‘먹었냐, 먹겠냐’로 實現될 뿐만 아니라 ‘먹느냐’도 ‘먹냐’로 實現되는 것이 지배적인 것은 ‘-느-’의 形態素性 消滅과 연관지어 解釋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동훈(2010)을 參考할 것.

(28)은 單語의 形成을 統合的인 性質을 가지는 規則의 側面에서 解釋하려는 傾向을 代辦한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零接尾辭는 單語 形成의 體系에서 매우 有標的이라는 데에서 設定의 負擔이 매우 크다는 점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즉 (28)의 規則은 모든 名詞가 副詞로 쓰이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數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Ø’가 負擔해야 하는 制約이 너무 큰 것이다. 이는 곧 單語 形成의 경우에는 (28)의 경우처럼 패러다임을 想定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과 통한다.

반면 (27나)와 같은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즉 動詞의 경우에는 現在를 나타내는 ‘-는-’이 外現的으로 存在하지만 形容詞의 경우에는 現在를 나타내는 形態가 外現的으로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는 거의 모든 動詞와 形容詞에 適用되므로 形容詞의 경우에는 現在를 나타내는 形態가 없고 動詞의 경우에는 現在를 나타내는 形態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形容詞의 경우에는 動詞에서 現在를 나타내는 形態의 異形態로 ‘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훨씬 體系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을 前提하는 語尾의 경우에는 零形態素를 認定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現在를 나타내는 形態素가 外現的이지 않은 경우가 더 一般的인데 이 경우에도 패러다임의 側面에서 現在를 나타내는 ‘Ø’ 形態素의 設定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中世 한국어에서 선행 체언이 ‘ㅣ’로 끝날 때 主格 助詞 ‘이’의 異形態로 ‘Ø’를 定하는 것도, ‘Ø’의 設定이 ‘ㅣ’로 끝나는 體言의 경우는 主格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體系的으로 安定性を 높인다는 점에서 역시 패러다임을 前提로 하는 異形態로서의 零形態素를 認定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助詞에서도 이러한 零形態素를 設定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助詞 省略의 경우에는 異形態로서의 ‘Ø’를 設定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相補的 分布를 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假令 主格이 언제나 外現的인 形態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格 體系 全般을 위해 該當 언어에는 主格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主格의 경우

16) 이는 單語 形成을 形態素 語基 가설이나 單語 語基 가설에 입각하여 規則으로 說明하려는 견해 모두에 적용된다.



에는 ‘Ø’의 零形態素가 實現된다고 보는 것이 體系的인 側面에서 더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것이다.

다음 空形態素의 認定 問題이다. 零形態素는 形態는 없지만 意味를 가지는 要素를 認定한다는 점에서 形態素의 定義에 어느 정도 符合하지만 空形態素는 形態는 있지만 意味를 가지지 않는 要素라는 側面에서 形態素의 定義에 正面으로 挑戰狀을 내미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일찍이 고영근(1978)에서 Aronoff(1976)의 ‘音韻論的 현현 방식의 特殊性’이라는 條件을 받아들여 ‘-오디’의 ‘-오-’를 意味는 없지만 하나의 形態素라 하고 이를 바탕으로 形態素의 定義도 “最小의 意味單位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일정한 音韻論的 특징을 가진 單位에까지 擴大될 수 있음”을 主張하였다(고영근 1978: 34). 김영옥(1997)에서는 이를 空形態素라 하고 形態素는 意味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 種類로 구분되며 따라서 “모든 形態素가 最小의 有意的 單位라는 通念은 더 이상 維持할 수 없게 된다.”고 言及하였다(김영옥, 1997: 185). 그리고 이른바 둘째 說明法 語尾 ‘-니라’의 ‘-니-’, ‘-오디/-옴’의 ‘-오-’, ‘-을브터’의 ‘-을’을 代表的인 예로 들었다. 한편 장윤희(1999)에서는 이들은 通時的 變化의 產物이므로 이를 共時的 分析에서 空形態素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sup>17)</sup> 그리고 通時的 變化의 結果에 대한 共時的 說明은 分析의 次元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說明을 위해서라면 空形態素를 設定하기보다는 ‘化石’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規定하여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더 適切한 것이라고 하였다. 시정곤(2000나)에서는 앞의 論議들에서의 空形態素 개념이 形態素의 기본 개념을 흐드는 것이라고 批判하고 共時的 개념인 形態素와 通時的인 變化의 產物인 ‘化石’은 서로 區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윤희(1999)와 一脈相通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形態素의 分析과 관련된 立場은 장윤희(1999), 시정곤(2000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앞의 (26나')의 ‘-느-’도 空形態素로 認定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장윤희(1999), 시정곤(2000나)에 의하면 ‘化石’에

17) 그리고 오히려 ‘거슬-(逆)’과 ‘거스라-’, ‘거랏-(濟)’과 ‘거리치-’, ‘뜯-(走)’과 ‘뜯아-’에서 보이는 ‘-아-’가 空形態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다.

### 3. 單語란 무엇인가?

形態論의 範圍는 形態素에서 출발하여 單語까지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形態素는 그 개념이 비교적 明確하여 큰 問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 單位로서의 單語는 形態素에 비한다면 起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전부터 導入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 대신 逆說的이게도 그 定義를 한마디로 言及하기 어렵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 單語가 우리에게 親近한 만큼 너무 많은 개념이 그 안에 包含되어 발생된 現象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單語는 多角的인 側面에서 定義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25)를 통해서 論議한 것처럼 矛盾에 直面하게 되고 形態論의 範圍도 함께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25)는 한국어를 對象으로 서로 다른 몇 개의 單語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提起하고 있다는 점에서 意味가 있다. 이를 (25)에 適用하여 다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29) 가. 땅, 돌, 많-, 얇-, 먹-, 가-

가'. 진흙땅, 돌가루, 돌질, 창문, 깨지-

나. 예, 이, 는, 가

나'. -다, -지, -았-, -(으)니

다. 땅에, 돌이, 진흙땅에는, 돌가루가, 돌질에, 창문이, 배가

다'. 많다, 많지, 얇다, 깨졌다, 먹으니, 가니

(29가, 가')은 語彙的인 側面에서 單語 개념과 관련된다. (29가)는 形態素 하나로 이루어진 單語이며 (29가')은 두 개 이상의 形態素가 結合하여 이루어진 單語이다. 따라서 (29가, 가')은 '語彙的 單語'라 할 수 있다.

(29나, 나')은 각각 助詞와 語尾를 整理한 것인데 助詞와 語尾는 '語彙

的 單語’는 아니지만 文章에서 句 이상과 結合한다는 側面에서 文章의 최소 單位로서의 單語의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29나, 나’)은 統辭的인 側面에서 單語라 할 수 있다. 이를 ‘文法的 單語’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 文法的 單語에는 물론 助詞와 語尾만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29가, 가’)에서 提示한 ‘語彙的 單語’도 모두 文章에서 句 以上과 結合할 수 있으므로 이들도 ‘文法的 單語’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즉 이들은 모두 文章 構成의 최소 單位로서의 單語 개념에 合當한 것들이다.

한편 (29다, 다’)은 形態素의 交替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역시 單語 개념에 符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語節에 該當하는 것들인데 語節은 대체로 氣息群(breath group)을 基準으로 하므로 이들을 ‘音韻論的 單語’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語彙的 單語, 文法的 單語, 音韻論的 單語’가 形態論에서 關心 對象이 되는 ‘單語’라고 할 수 있다. ‘語彙的 單語’는 單語 形成의 結果라는 점에서, ‘音韻論적 單語’는 形態素 交替의 範圍가 된다는 점에서 각각 形態論에서 중요한 役割을 하는 單語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文法的 單語’ 개념은 경우에 따라서는 語彙的 單語 개념과 一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音韻論적 單語와 一致하는 경우도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文章 形成의 入力部가 된다는 점에서 重要하다.

이제 이러한 單語 개념들에 立脚하면 韓國어가 ‘膠着語’로서 ‘屈折語’와 區別되는 側面이 浮刻될 수 있다. 즉 屈折語는 音韻論的 單語가 곧 文法的 單語와 一致하지만 韓國어는 膠着語로서 音韻論的 單語가 곧 文法的 單語와 一致하지 않는 언어가 되는 셈이다.

#### 4. 單語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앞의 論議를 통해 ‘單語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質問에서의 ‘單語’

18) 최형용(2013나)에서는 文法的 單語를 다시 두 가지로 더 세분하여 句 이상과 結合하는 것으로서 助詞와 語尾를 包含한 것들을 ‘文法的 單語1’로, (29나, 나’)과 같은 助詞와 語尾만을 따로 ‘文法的 單語2’로 구분한 바 있다. 즉 ‘語彙的 單語’와 ‘文法的 單語2’를 합친 것이 ‘文法的 單語1’이 되는 것이다.

는 語彙的 單語임을 알 수 있다. 助詞나 語尾와 같은 文法的 單語는 單語 形成의 對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2장과 3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單語 形成 方法 곧 機制는 規則과 類推의 論爭으로 모아지고 있는 形局이다.

그런데 于先 송원용(2010: 20~21)에서 言及하고 있는 바와 같이 類推를 主張하고 있는 사람들이 批判하는 規則이, 規則을 主張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規則과 一致하지 않고 반대로 規則을 主張하고 있는 사람들이 批判하는 類推가, 類推를 主張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類推와 一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言及할 필요가 있다. 사실 規則을 主張하는 사람들보다 規則에 대해 보다 嚴密하게 定義하고 있는 것은 類推를 主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채현식(2006: 581)에서는 規則과 類推를 다음과 같이 區別하고 있다.

(30)

	규칙	유추의 틀
표상의 존재 방식	독립적 표상을 지닌다.	기존 단어들에 기대어서만 존재한다.
	그 출력형이 저장되지 않는다.	틀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는 저장된다.
	적용된 단어들의 유형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추의 틀을 형성하는 단어들의 유형 빈도에 민감하다.
	정적인(static) 표상	역동적인(dynamic) 표상
	장기기억 속에 존재	단기기억 속에 존재
적용 방식	도출의 방향성을 갖는다.	도출의 방향성이 없다.
	직렬적(serial)으로 처리된다.	병렬적(parallel)으로 처리된다.
	첨가 과정이다.	대치 과정이다.
어휘부 이론에서 차지하는 위상	규칙을 위한 단어형성부를 따로 둘 수 있다.	유추의 틀만을 위한 부문을 따로 둘 수 없다.

그러나 重要的 것은 規則을 主張하는 사람들도 類推에 의한 單語 形成을 完全히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sup>19)</sup> 또한 모든 單語를 規則으로 形成할 수 있

19) 規則을 單語 形成의 機制로 認定하고 있는 황화상(2010)에서도 이러한 記述이 보인다. 황화상(2010)에서는 機制로서의 單語 形成 規則이 獨立한 表象으로 存在하고 單語 形

다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前者의 背景에는 類推가 언어 학에 導入되게 된 背景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言語學에서 類推에 本格的인 關心을 기울이게 된 것은 독일 라이프니치 大學을 中心으로 活動 하던 少壯文法學者(Junggrammatiker)들이 歷史言語學的 觀點에서 法則(law) 으로 說明되지 않는 例外的인 音韻 變化 現象들을 類推를 원리로 삼아 說明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法則 혹은 規則과, 類推의 관계가 비교적 分明하게 區分되었을 뿐만 아니라 類推는 規則의 補助的인 地位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20)</sup>

다음으로 국내 單語 形成 論議 가운데 規則에 基盤한 論議들에서 가장 많이 引用되는 Aronoff(1976)에서도 ‘規則的인’ 單語 形成만 ‘規則’의 對象 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고 論議도 따라서 生産的인 派生語 形成에만 關

---

成은 共時的 現象이며 單語 形成 規則은 命名의 필요성이 생길 때만 作動한다는 점에서 單語를 過生成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側面을 들어 規則論을 擁護하고 있다.

- 20) 최형용 외(2015: 21~27)에서는 類推와 規則을 크게 네 가지 觀點에서 相關的인 側面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중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 歷史言語學的 觀點과 單語 形成에서의 觀點이다. 이 외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類推와 規則을 同一線上에서, 一種의 程度性으로 區別하려는 論議들이다. 이는 于先 規則에 대해서도 程度性을 認定한다는 것을 前提한다. 가령 Haspelmath(2002)에서는 形態論의 規則이 ‘生産性’의 程度에서 差異가 있음을 認定한다. 즉 Haspelmath(2002: 39~40)에서는 새로운 單語들을 만들 수 있는 形態論의 類型이나 規則들을 ‘生産的(productive)’이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 非生産的 規則들이 存在하는 理由는 語彙部(lexicon)가 存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非生産的 規則들에 의해 形成된 單語들은 語彙部에 登載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類推의 ‘틀’도 ‘規則’과 對等한 것으로 看做하는 見解와 相通한다. Booij(2010)에서는 ‘틀’과 ‘規則’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데 類推는 存在하는 單語나 部類가 새로운 單語 形成을 위한 出發點으로 機能한다고 보는 것이고 ‘틀’ 혹은 ‘規則’은 單語들이 抽象的 패턴에 따라 形成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틀’은 抽象性에 따라 位階를 가지고 있으므로 具體的인 特定 複合語 部類는 類推와 같은 機能을 擔當하고 이들이 보다 一般化하여 具體的 模型 單語들을 떠나면 패턴을 形成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類推를 매우 高度로 規則性을 띤, 規則 以上の 存在로까지 看做하는 것이다. 最近에 컴퓨터 프로그램 開發을 목적으로 하는 ‘類推 模型(analogical model)’이 이러한 見解를 代辦한다. Skousen(2009: 164)에 의하면 ‘類推 模型’은 行動을 豫測하는 一般 理論 이고 이를 언어에까지 適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理論을 ‘類推 模型’이라고 부르는 것은 結果의 豫測이, 實例로 이루어진 데이터집합(dataset)에 基盤하고 있기 때문이다. ‘類推 模型’에서는 結果의 豫測(prediction)이 주된 關心事이며 正確한 豫測을 위해 알고리즘의 精密化를 위해 여러 가지 操作을 하게 된다. 즉 ‘類推 模型’에서의 ‘類推’는 곧 高度의 一般化를 意味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例外를 認定하는 規則(rule)보다도 더 規則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心を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반대로 類推를 主張하는 見解들에도 適用된다. 모든 單語가 類推에 의해 形成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21)</sup>

이처럼 單語 形成의 機制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語彙部の 組織과 役割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語彙部도 ‘例外들의 집합’, ‘單語貯藏部’, ‘單語形成部’, ‘獨立된 모듈을 가지는 部門’ 등으로 ‘單語’만큼이나 그 意味가 多樣하게 되었다.<sup>22)</sup>

따라서 지금은 單語 形成이 規則이나 類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主張하기보다는 새로운 單語 形成의 모습을 全體的인 視角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判斷된다. 또한 그와 함께 한국어 單語 가운데 다른 언어와 差別되는 單語 形成의 側面을 浮刻하는 데도 努力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어는 膠着語인데 ‘膠着’이란 쉽게 말하여 ‘단단히 달라붙어 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屬性 때문에 한국어에는 助詞가 結合한 構成, 語尾가 結合한 構成이 單語로 發展한 것들이 적지 않다. 助詞나 語尾가 單語의 中間에 分布하고 있는 ‘너도밤나무’, ‘남의집살이’, ‘어린이, 살펴보다’와 같은 것도 이러한 예가 되지만 특히 單語의 끝에 結合한 경우도 다음의 예들처럼 적지 않다.

(31) 가. 뜻밖에, 진짜로, 너무나, 마음대로, 좀처럼 ...

나. 갈수록, 오래도록, 왜냐하면, 되게, 웬지 ...

그동안은 單語 形成의 體系를 屈折語 中心으로 派生語와 複合語로만 分類할 때는 (31)에서 보이는 單語들이 설 자리가 없어 助詞나 語尾를 接尾辭로 ‘分析’하는 일이 많았다.<sup>23)</sup> 그런데 (31)의 單語들은 規則으로도 類推로

21) 가령 頭字語나 頭音節語는 그것이 가지는 豫測 不可能性 때문에 規則의 側面에서도 類推의 側面에서도 全面的인 모습이 다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이에 대해서는 최형용(2013가)에서 仔細하게 整理한 바 있다.

23) 사실 이러한 單語들에 注目한 최형용(2003)에서도 이들을 關心의 中心에 놓고 ‘統辭的 結合語’라는 이름을 附與하였으나 全體的인 單語 形成 體系에서는 ‘境界的인 現象’으로 다루었다. 그러다가 최형용(2013나)에 이르러 이러한 單語들이 膠着語인 한국어 單語 形成의 特性을 보이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새롭게 意味를 附與한 바 있다. 한편 (31)의 예들은 모두 副詞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膠着語들에도 이러한 副詞가 많은

도 그 形成을 說明하기 어려울뿐더러 共時的으로 形成 過程을 說明하기도 힘들다.

合成語임이 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單語들도 例外가 아니라 한국어 單語 形成의 特性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 不足함이 없을 것이다.

(32) 앞서다, 뒤서다, 거울삼다, 남부끄럽다 …

(32)에서 ‘앞’, ‘뒤’, ‘거울’, ‘남’은 文章으로 치면 모두 副詞語에 해당한다. 한국어에는 이처럼 主語나 目的語가 아니라 副詞語에 該當하는 要素가 單語 形成에 參與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核 移動 head movement이나 非對格 假說 Unaccusative Hypothesis로는 그 形成을 說明할 수 없다.

한국어에 특히 다음과 같이 接尾辭에서만 差異가 나서 서로 交替가 가능한 ‘同義派生語’가 많다는 것도 이른바 Aronoff(1976)의 沮止現象(blocking)에 例外가 된다는 점에서 重要하며 아울러 語彙部의 剩餘性を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注目할 필요가 있다.

(33) 가. 가닐대다/가닐거리다(3,624), 경락자/경락인(78), 가무스레하다/가무스름하다(21), 고실자/고실가(18) …

나. 날고치/생고치(16), 불가역/비가역(6), 건구역/헛구역(2), 몰비판/무비판(2), 생아버지/친아버지(2) …

(33가)는 接尾辭가 對應素인 同義派生語 類型이고 (33나)는 接頭辭가 對應素인 同義派生語 類型이다.<sup>24)</sup>

逆說的이게도 (31)~(33)의 單語들은 한국어 單語 形成의 特殊性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동안 規則이나 類推의 對象으로 言及된 경우는 없어 보인다.

지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도록 한다.

24) 括弧 안의 숫자는 같은 類型으로 나타나는 同義派生語의 規模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同義派生語의 類型과 特徵에 대해서는 최형용(2009다)에서 仔細하게 다룬 바 있다.

## 5. 單語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앞서 여러 가지 單語 개념을 導入한 바 있다. 그렇다면 一定한 性質을 공유하는 單語들의 묶음인 品詞 分類의 對象이 되는 單語 개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品詞는 새로운 單語 形成에 關與하는 單語가 아니라 文章 形成에 關與하는 單語를 나눈 것이므로 이때 필요한 單語 개념은 ‘文法的 單語’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文法的 單語는 文章에서 句와 結合이 가능한 것임을 言及한 바 있다. 이를 考慮한다면 앞서 提示한 (25가, 가’, 가”) 文章은 다음과 같은 文法的 單語로 나눌 수 있다.

(34) 가. 땅, 에, 돌, 이, 많, 다(25가)

나. 진흙땅, 에, 는, 돌가루, 가, 많, 지, 았, 다(25가’)

다. 돌질, 에, 창문, 이, 깨지, 었, 다(25가”)

여기서의 爭點은 우선 助詞뿐만이 아니라 語尾에도 單語 資格을 附與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助詞에는 單語의 資格을 附與하고 語尾에는 單語의 資格을 附與하지 않은 것은 助詞가 結合하는 先行 要素와의 關係가 語尾가 結合하는 先行 要素와의 關係보다 덜 密接하다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그러나 自立性이나 分離性에 程度性이 있다고 해도 助詞와 語尾가 依存 形態素이고 文法 形態素라는 점에는 變化가 없고 무엇보다 助詞뿐만이 아니라 語尾도 句와 結合한다는 것은 統辭論의 立場에서는 이제 常識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語尾에도 品詞 分類를 위한 單語 資格을 附與하게 되면 이른바 品詞 分類 基準에서도 變動이 不可避하다. 品詞 分類 基準으로 드는 것은 代表的으로 ‘意味’, ‘機能’, ‘形式(form)’의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形式은 動詞, 形容詞와 나머지 品詞를 區別해 주는 것으로서 語尾를 單語의 一部分으로 看做할 때에만 存在 價値를 가지는 基準이기 때문이다. 즉 動詞, 形容詞는 語尾의 變化로서 可變語가 되고 나머지는 形式의 變化가 없는 不變語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에 活用은 認定하고 曲用은 認定



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며 結果的으로는 반쪽 ‘屈折(inflection)’을 認定하는 셈이 된다. 語尾를 單語로 認定하는 것은 이러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長點도 갖는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사실 語尾를 單語의 一部로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動詞, 形容詞과 나머지를 區別해 주는 品詞 分類 基準으로서의 形式은 屈折語라면 몰라도 한국어와 같은 膠着語에서는 그 役割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최형용(2012)에서는 이러한 側面에서 한국어에서 品詞 分類 基準으로서의 ‘形式’을 부정하고 대신 ‘分布’를 基準으로 設定할 것을 主張한 바 있다. 動詞와 形容詞가 語尾 ‘-는다’와의 結合에서 差異를 보인다고 言及해 왔던 것은 사실 ‘形式’이 아니라 이들 品詞의 分布의 特徵 差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動詞는 ‘-는다’나 ‘-니다’와 結合할 수 있고 形容詞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意味에서 動詞나 形容詞의 形式 관련한 特性일 수 없다. 活用の 認定에 따른 ‘形式’ 基準은 오히려 이들을 한데 묶는 데 필요한 개념이다.

名詞에 비해 代名詞나 數詞가 冠形詞의 수식을 받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들 品詞 사이의 分布의 差異로 認識할 수 있다. ‘이다’는 分布의 特性에 基盤한다면 助詞가 아니라 形容詞로 分類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다’를 助詞로 分類하는 體系에서는 既存의 形式의 基準에 따르면 可變語가 不變語와 함께 묶이는 矛盾을 불러오는 存在였을 뿐이다. 이른바 存在詞도 分布의 側面에서만 보면 獨自적인 品詞로 歸結되는 것보다는 動詞나 形容詞의 範圍 안에서 處理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存在詞는 때로 動詞나 形容詞의 屬性을 보이는 것이지 動詞나 形容詞와 完全히 區別되는 屬性 즉 分布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分布는 機能과 密接한 연관을 맺는 것이 分明하지만 앞서 言及한 것처럼 이들은 엄연히 區別되는 性質을 가지고 있다. 가령 動詞가 命令形과 請誘形이 可能하다는 것은 機能으로도 言及할 수 있고 分布로도 言及할 수 있지만 假令 ‘-는다’나 ‘-니다’와 結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機能으로 言及하기 어렵다. 또한 冠形詞가 名詞를 修飾하고 副詞가 動詞나 形容詞 등을 修飾하는 것은 機能이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冠形詞가 名詞의 앞에서, 副詞

가 動詞나 形容詞 등의 앞에서 修飾할 수도 있고 뒤에서 修飾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冠形詞나 副詞가 名詞나 動詞 혹은 形容詞 등을 그 앞에서 修飾하는 것은 嚴密한 意味에서는 分布로 捕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6. 漢字語 形態論의 位相은 어떠한가?

漢字語와 관련된 問題는 이를 形態素와 單語의 側面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漢字語 形態素의 問題는 유현경(2013) 정도만 지적하고 있다. 이는 現行 學校 文法이 漢字語의 形態素 資格 附與에 積極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85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행된 『문법』은 제1차 고등학교 單一 教科書이다. 그런데 이 책은 1983년 강신항 밖에 6명이 집필한 「學校文法 體系 統一을 위한 研究」를 바탕으로 言論 機關과 全國의 國語學 專攻 학자 및 고등학교 教師들의 公開 檢討를 받기 위한 審議本(1984)을 거쳐 製作된 것이다. 漢字語의 形態素 分析과 관련하여 興味로운 것은 審議本(1984)에서는 ‘동화책’이라는 例文이 나오고 이때 ‘동화’를 形態素 ‘동’과 ‘화’로 分析하였지만 1985년 『문법』은 이 ‘동화책’을 ‘이야기책’으로 바꾸어 依存性을 가지는 漢字의 形態素 分析 問題를 言及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變化가 큰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漢字는 大部分의 경우 意味를 가지므로 形態素의 定義的 屬性을 滿足시킨다. 따라서 漢字에 形態素의 資格을 附與하는 데는 큰 問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漢字語를 形態素로 分析하는 데서 생기는 問題는 생각보다 單純하지 않다. 漢字 ‘別’을 통해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5) 이 외에도 1984년 審議本과 1985년 『문법』은 흥미로운 差異가 적지 않다. 이를 參考로 整理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35) 가. 그와 나는 별 사이가 아니다.

나. 같은 양념을 해도 엄마가 한 음식은 별한 맛이 있다.

다.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35)는 『표준국어대사전』에 提示되어 있는 ‘別’의 예를 든 것이다. (35가)는 ‘別’이 冠形詞로 되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35나)는 ‘別하다’라는 形容詞의 語根으로 處理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35다)는 이

단원	<1984년본 문법(심의본)>	<1985년본 문법>
단어	명사는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의존 명사, 자립 명사’, ‘유정 명사, 무정 명사’로 나누어 기술함.	‘유정 명사, 무정 명사’는 빠짐.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지시 대명사’로 나누어 기술함.	‘재귀 대명사’ 빠짐.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순으로 기술함.	조사를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순으로 기술함.
	‘데리다’를 ‘불구 동사’라 함.	‘데리다’를 ‘불완전 동사’라 함.
	‘단일어’의 대응어를 ‘합성어’라 함.	‘단일어’의 대응어를 ‘복합어’라 함.
	파생과 합성에서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대해 기술함.	이 부분이 빠짐.
문장	‘동생에게, 학교에’ 등도 보어로 기술함.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만 보어로 인정하고 ‘동생에게, 학교에’와 같은 것들은 필수 부사어로 다룸.
	‘철수는 머리가 좋다’에서 ‘철수는’을 주체어로 기술함.	주체어에 해당하는 기술이 빠짐.
	‘동작상’이 시제와 별도로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으로 기술됨.	‘동작상’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시제 설명 부분에서 빼놓아짐.
	상대 높임법에서 ‘오, 읊’ 등의 공손 선언어말 어미를 다루지 않음.	상대 높임법에서 ‘오, 읊’ 등의 공손 선언어말 어미에 대해 기술함.
	객체 높임법을 따로 두어 기술하였음.	객체 높임법을 따로 두지 않고 ‘높임말과 낮춤말’에서 통합하여 다룸.
	‘홀문장, 겹문장’에 대한 기술이 없음.	‘홀문장, 겹문장’에 대해 기술함.
	‘서술절’에 대한 기술이 없음.	‘서술절’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기술함.
말소리	‘ㅁ, ㄴ, ㅇ’을 ‘콧소리’, ‘ㄹ’을 ‘흐름소리’라 함.	‘ㅁ, ㄴ, ㅇ’을 ‘비음’, ‘ㄹ’을 ‘유음’이라 함.

‘別’이 接尾辭로 處理되어 있는 경우이다. 물론 辭典에서는 이들을 그 範疇에 따라 모두 同音異義語로 處理하고 있으나 이는 歸納的인 것이고 ‘別’의 意味가 가지는 共通性만 놓고 본다면 一般的인 同音異義語보다는 多義語로 處理할 만한 性質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漢字 ‘別’은 形態素의 種類를 따지기만 하더라도 (35가)는 自立形態素요 實質形態素이고 (35나)는 依存形態素요 實質形態素이며 (35다)는 依存形態素이자 形式形態素가 되는 셈이어서 ‘別’은 形態素 分類의 경우의 수만큼 多樣한 形態素의 資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漢字의 特殊性은 곧 單語 形成에서의 特殊性으로 이어진다.

(36) 가. 별과(別科), 별대(別隊), 별미(別味), 별시(別時), 별실(別室)

나. 별것, 별놈

다. 별구경, 별궁리, 별사건, 별세상, 별수단

; 별걱정, 별꼴, 별말씀, 별맛, 별사람, 별소리

라. 별하다, 별나다, 별다르다, 별스럽다,

마. 별로, 별의별(별별)

바. 능력별, 성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36)은 ‘別’이 單語 形成에 參與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다. 물론 이들을 意味 差異의 多寡에 따라 더 나눌 수도 있고 한데 묶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36가)는 ‘別’을 語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36나)는 冠形詞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36다)는 冠形詞가 單語 形成에 參與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直接 構成 分析에서 ‘別’을 除外한 나머지가 單語의 資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別’을 接頭辭로 看做할 수도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별걱정’부터 提示한 것처럼 固有語와도 자유롭게 結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處理 可能性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6라)는 ‘別’이 用言 形成에 參與하고 있다는 점에서 冠形詞로 解釋할 수는 없는 경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36마)는 副詞格 助詞, 冠形格 助詞와 結合하고 있다는 점에서 冠形詞나 語根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를 名詞로 分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바)는 (35다)를 다시 提示한 것인데 ‘別’이 接尾辭로도 發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固有語 가운데도 ‘새엄마’, ‘큰아버지’의 ‘새’와 ‘큰’처럼 接頭辭인지 冠形詞인지 判斷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가 ‘別’처럼 接尾辭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固有語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特殊性에 기반하여 漢字語의 경우를 固有語의 경우와 분리하여 別途體系論을 主張할 수도 있다. 그러나 漢字가 보이는 特殊性은 그 意味 때문이고 이에 따라 노명희(2005)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多樣的 地位를 附與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설령 ‘接辭性 語根’처럼 程度性이나 境界性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여도 이들을 固有語와 區別되는 漢字語만의 別途體系論으로 따로 展開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에 대한 根據 가운데 하나는 이미 (36나, 다, 라, 마)에서 보인 것처럼 漢字 가운데는 이미 固有語의 體系 속에서 그 機能을 發揮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漢字語를 위한 別途體系論을 主張한다면 現代 한국어에서 多樣的 外來語가 固有語 體系 속에서 원래 外國語가 가지던 秩序와는 달리 接辭化하거나 品詞的 地位를 바꾸는 現象도 모두 각각 別途體系論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漢字를 이용하여 單語를 形成한다고 하더라도 그 構成 順序가 언제나 中國語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

(37) 가. 음차(音借), 훈차(訓借)

나. 철부지(-不知)

(37가)는 ‘借字’의 종류인데 ‘借字’는 漢字의 構成 順序가 文章으로 치면 ‘敍述語+目的語’의 順序로 되어 있지만 ‘音借’, ‘訓借’는 모두 ‘目的語+敍述語’의 順序로 되어 있어 한국어의 語順과 一致한다. (37나)는 固有語와 漢字의 結合인데 이것도 漢字의 構成 順序를 따른다면 ‘부지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單語들의 存在는 結局 漢字語 形態論도 固有語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固有語와 달리 漢字의 경우는 그 範疇가 훨씬 더 多樣할 수 있다는 差異는 오히려 한국어의 特殊性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다.

## 7. 整理 - 膠着語로서의 한국어 形態論의 特殊性

지금까지 2장과 3장을 통해提起된 한국어 形態論의 爭點들에 대해 聯關性을 中心으로 所見을 提示해 보았다. 形態論은 形態素로부터 시작하여 單語까지를 연구 對象으로 삼는 學問 分野이고 이는 形態素의 交替와 結合으로 그 範圍를 限定할 수 있다. 形態素는 그대로 單語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形態素가 結合하여 單語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單語는 觀點에 따라 音韻論的 單語와 語彙的 單語, 文法的 單語의 셋으로 나눌 수 있었다. 語彙的 單語의 形成은 規則이나 類推를 機制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까지는 언어에 따라 共通되게 適用할 수 있는 形態論의 普遍性を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이들 現象이 각각 特殊性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特殊性은 普遍성과 함께 서로 有機적으로 聯關性を 맺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장에서 聯關적으로 論議된 形態論의 爭點에 대한 所見을 송철의(1997)에서提起한 한국어 形態論의 特殊性으로 바꾸어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38) 가. 한국어는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문법적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나. 한국어에서 형태소의 교체는 음운론적 단어 개념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다. 한국어에서 품사의 분류는 문법적 단어 개념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라. 한국어에서 문법적 단어 개념에 입각하여 품사를 분류하면 어미를 품사의 하나로 인정해야 하므로 품사 분류 기준 가운데 ‘형식’은 기준이 될 수 없다.

- 마. 한국어의 어휘적 단어 가운데는 조사 결합어, 어미 결합어가 적지 않은데 이는 예외가 아니라 한국어가 교착어로서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바. 한국어의 한자어 형태론은 고유어 형태론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데 한자어 형태론의 특수성은 한국어 형태론의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38) 가운데 (가)에서 (마)까지가 특히 膠着語로서의 한국어 形態論의 特性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38)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形態論의 연구가 西洋의 理論에 크게 傾倒되어 한국어 自體에 焦點을 맞추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強調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제는 그러한 傾向에서 脫皮하여 한국어가 보여 주는 언어 現象이, 例外로서가 아니라 特殊性으로 浮刻되는 方向으로의 觀點 轉換이 필요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 形態論 연구의 展望

4장에서의 論議는 대체로 그 焦點이 形態論의 巨視的 爭點과 微視的 爭點에 대한 所見 提示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形態論과 다른 領域과의 關係를 展望으로 提示함으로써 맺음말을 代身하고자 한다.

송철의(1997), 송철의(2000), 시정곤(2000가)의 論議는 形態論이 다른 領域의 範圍나 方法論과 葛藤할 것이 아니라 協業하여 形態論의 可能性을 探索하자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音韻論, 形態論, 統辭論의 領域에서 다른 領域에 대해 論議한 것은 境界的 現象을 어떻게 하면 妥當하게 說明할 수 있을까를 苦悶하기보다는 이를 各自의 領域으로 끌고 들어가 領域을 擴張하려는 方向으로 展開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領域의 方法論이 形態論의 연구를 보다 深度 있게 하거나 새로운 方法論을 提示하는 데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重要的 價値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類推에 대한 論議가 語彙部의 組織을 밝히는 것으로 關心이 넓어지면서 心理言語學의 方法論을 導入하여 心理的 實在를 證明하

려는 것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할 필요가 있다. 최형용(2014가, 나)는 이러한 觀點에서 意味論의 觀點이 單語 內部 構造 分析에 寄與할 수 있는 바를 찾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시정곤(2000가)의 論議는 특히 形態論의 연구가 情報學과 관련되는 부분을 強調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國內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情報學을 위한 基礎 道具를 提供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지만 國外에서는 보다 具體的인 成果가 쌓이고 있는 듯하다. 이는 情報 理論에 基盤하여 形態論의 現象들을 豫測하는 것으로 具體化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意味 있는 論議로 Ackerman et. al.(2009)와 같은 論議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ckerman et. al.(2009)에서는 ‘패러다임 칸 채우기 問題(Paradigm Cell Filling Problem)’를 情報 理論에 基盤하여 計量化해 說明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북부 Saami, 핀란드어, Tundra Nenets 세 개 언어의 曲用 패러다임을 對象으로 含蓄的 關係를 計量化하고 있다. 含蓄的 關係란 곧 어떤 單語形을 아는 것을 통해 다른 單語形을 豫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含蓄性 개념은, 既存의 形態論의 類型論의 論議가 單語當 形態素의 수나 形態素 融合(fusion)의 정도를 測定하는 등 個別 單語의 構造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限界가 있는 데 비해 그 單語가 속한 패러다임 전체로 論議를 擴大하고 該當 패러다임이 가지는 含蓄的 關係들에 注目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形態論에도 適用될 만한 價値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앞으로 한국어 形態論은 이와 같은 側面에서 다른 領域에 대한 關心을 통해 形態論의 懸案을 解決하고 새로운 연구 主題를 提示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積極的으로 摸索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6)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최형용(2015나: 293~297)를 참고하기 바람.



# <參考文獻>

- 고영근(1978), 「형태소 분석한계」, <언어학> 3, pp.29~35.
- 고재설(2007),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노명희(2005)를 중심으로」, <형태론> 9(1), pp.205~218.
- 구본관(2002),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pp.1~48.
- 김영옥(1997), 「공형태소에 대하여」, <전통어문연구> 9, pp.181~198.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송원용(2010), 「형태론 연구의 쟁점과 전망-유추론자와 규칙론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8, pp.1~44.
- 송철의(1997), 「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양학> 27, pp.45~65.
- \_\_\_\_\_ (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pp.287~311.
- 시정곤(2000가), 「정보화 시대와 형태 연구의 새로운 방향」, <한민족어문학> 37, pp.1~35.
- \_\_\_\_\_ (2000나), 「공형태소를 다시 생각함」, <한국어학> 12(1), pp.147~165.
- \_\_\_\_\_ (2002), 「현대형태론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 16, pp.89~104.
- 유현경(20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홍식(2012), 「<국어국문학> 60년-국어학」, <국어국문학> 160, pp.105~139.
- 임동훈(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pp.3~44.
- 장윤희(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pp.227~244.
- \_\_\_\_\_ (2010), 「<국어학> 50년-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pp.335~372.
- 전후민(2011), 「‘-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느-’의 이형태 교체를 중심으로」, <형태론> 13(2), pp.311~333.
- 주시경(1914), 『말의소리』, 신문관(역대한국문법대계 11 13).
- 채현식(2006), 「규칙과 유추의 틀」, 『이병근선생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pp.567~583.
- 최명옥(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형태론-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09가), 「현대 국어의 사이시옷은 과연 형태소인가」, <형태론> 11(1), pp.61~78.
- \_\_\_\_\_(2009나),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pp.3~26.
- \_\_\_\_\_(2009다),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국어학> 52, pp.27~54.
- \_\_\_\_\_(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 <형태론> 14(2), pp.233~263.
- \_\_\_\_\_(2013가),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 pp.361~413.
- \_\_\_\_\_(2013나),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_\_\_\_\_(2014가), 「‘덜샘’, ‘빨샘’, ‘곱샘’, ‘나눠샘’의 형태론-어휘장 형태론을 제안하며」, <형태론> 16(1), pp.1~23.
- \_\_\_\_\_(2014나), 「복합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국어학> 70, pp.85~115.
- \_\_\_\_\_(2015가), 「형태론의 융합과 유형」, <국어국문학> 170, pp.139~177.
- \_\_\_\_\_(2015나), 「문법에서 유추의 역할은 무엇인가—블레빈스 외 편(2009), *Analogy in Grammar*를 중심으로—」, <형태론> 17-2, pp.285~335.
- 최형용 외(2015), 『한국어 연구와 유추』, 역락.
- 홍중선(1998), 「구조 분석에서 형성으로-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어문논집> 38(1), pp.369~399.
- \_\_\_\_\_(2015), 「광복 70년, 국어학의 여정과 통일 좌표」, <국어국문학회 2015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5~67.
- 황화상(2010), 「단어형성 기체로서의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58, pp.61~91.
- Ackerman, F. & J. P. Blevins & R. Malouf(2009), Parts and wholes: Implicative patterns in inflectional paradigms, In Blevins, J. P. & Blevins. J.(eds.)(2009), *Analogy in Grammar: Form and Acqui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54~82.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Mass: MIT Press.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Booij, G.(2005), *The Grammar of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10), *Construction Morp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spelmath, M.(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Skousen, R.(2009), Expanding analogical modeling into a general theory of language, In Blevins, J. P. & Blevins. J.(eds.)(2009), *Analogy in Grammar : Form and Acqui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64~184.

■ ABSTRACT

## Morphology, way-finding among the points in dispute

Choi, Hyung-yong

There are some reciprocal connections among the points in dispute in morphology. The points in dispute can be reorganized largely into definition and scope of morphology, definition of morpheme, definition of word, methods of word-formation, methods of word-classification and phase of morphology of Sino-Korean. It seems to be cross-linguistically universal that morphology deals with words from morphemes. But except this definition of morphology, specialties of each language must be reflected to the remaining issues. At this poin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word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there are some cases that are not correspondent among phonological words, grammatical words and lexical words in Korean. The concept of phonological word is applied to the alternation of morphemes and the concept of grammatical words i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In the concept of grammatical word, Korean endings can be classified as a parts of speech, and the 'form' as a criterion of classification is not useful any more. The concept of lexical word is applied to word-formation. There especially are many syntactically combined words in Korean including *Josa* and endings, and these words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specialty of Korean rather than exceptions. Therefore morphological peculiarities of Sino-Korean also have to be recognised as a kind of specialty of Korean morphology.

※ key-words: morphology, morpheme, alternation, phonological word, grammatical word, lexical word